넥센·LG·KIA·SK '외인 농사' 빠를수록 좋다?

베이스볼 브레이크

일찌감치 외국인선수 3명과 재계약 마쳐
한화·롯데·삼성·kt는 최선의 카드 물색
두산, 니퍼트만 남아…NC는 이제 시작

KBO리그 구단들이 2017시즌 성적을 좌우할 외국인선수 재계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를 넘기기 전에 계약을 마친 구단도 있고, 아직 1~2명의 선수만 계약해 더 영입해야하는 구단도 있다. 현 시점에서 외국인선수 재계약 현황을 점검해본다.

●넥센 LG KIA SK "3명 모두 완료"

4개 구단은 일찌감치 3명의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마쳤다. 넥센, LG, KIA, SK가 가장 빠른 행보를 보였다.

넥센은 좌완 앤디 밴헤켄과 90만 달러에 재계약하는 한편, 새 외국인투수 션 오설리반을 총액 110만 달러에 영입했다. 외국인투수 둘에게 과감하게 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야수는 대니 돈과 재계약(65만 달러)했다.

LG는 올해 활약한 3총사를 모두 눌러 앉히는 데 성공했다. 데이비드 허프와 140만달러 조건에 사인하고, 헨리 소사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90만 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야수 역시 루이스 히메네스와 20만 달러 오른 100만 달러에 붙잡았다. 3명에게 총 330만 달러를 투자했다.

KIA는 15승 투수 헥터 노에시와 올해와 같은 170만 달러에 재계약하고, 새 외국인 좌완투수 팻딘을 90만 달러에 잡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리고 브렛 필을 내보낸 뒤 발 빠른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를 90만 달러에 잡았다.

SK는 메릴 켈리를 지난해보다 10만 달러 더 얹은 85만 달러에 잔류시키면서 새 사령탑인 미국인 트레이 힐만 감독과 공조해 스캇 다이아몬드(60만 달러), 내야수 대니 워스(70만 달러)를 새롭게 영입했다.

●1~2명 추가선수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구단들

두산은 18승 투수 마이클 보우덴과 올해(65만 달러)보다 45만 달러 많은 11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닉 에반스도 10만 달러 오른 68만 달러에 사인했다. 그러나 올해 22승을 올리며 시즌 MVP를 거머쥔 최고투수 더스틴 니퍼트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니퍼트는 지난해 150만 달러를 받다가 올해 120만 달러로 삭감돼 자존심 회복을 바라고 있다. 협상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화는 윌린 로사리오를 20만 달러 오른 150만 달러의 조건에 재계약했지만, 새 외국인투수 2명은 아직 안개속이다. 부상자와 수술 선수가 속출해 마운드가 약한 만큼 확실한 투수를 물색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롯데는 새 외국인투수 파커 마켈을 52만5000달러에 영입했다. 조쉬 린드블럼이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돌아가 피츠버그와 계약했기 때문에 투수 1명과 야수 1명이 더 필요하다. 마지막 카드로 브룩스 레일리와 재계약하는 방안도 남겨두고 있다.

올해 외국인선수 농사를 모두 망친 삼성은 모두 물갈이한다는 방침 아래 204cm 장신투수 앤서니 레나도를 105만 달러에 새롭게 데려왔다. 투수 1명과 야수 1명을 더 영입해야한다. kt는 투수 돈 로치(85만 달러)와 1루수 요원인 조니 모넬(90만 달러)을 새로 계약했다. 투수 1명이 더 필요하다.

가장 궁금한 것은 NC의 행보다. 아직 단 1명도 계약하지 못했다.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끝나지 않아 구단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NC는 당초 3명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에이스 역할을 한 에릭 해커와는 재계약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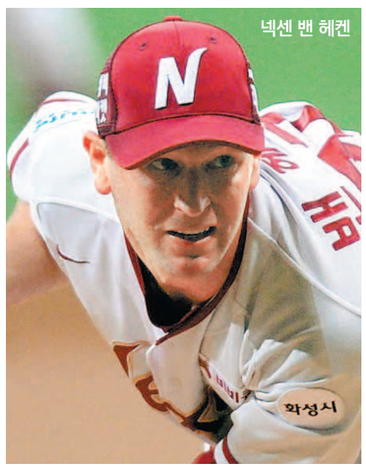
외국인선수 영입 실무를 맡은 한 구단 관계자는 "KBO리그에 형성된 외국인선수 몸값이 이미 치솟아 한국 구단과 협상하는 선수와 에이전트들의 눈높이가 올라가 있다"면서 "몸값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선수, 특히 투수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괜찮은 자원이 있다 싶으면 KBO리그 다른 구단은 물론 일본 구단과 경쟁을 해야 했는데, 최근엔 투수가 부족하다보니 미국 구단과도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가에 들어간다. 아무래도 외국인선수와 계약하지 못한 구단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10개 구단 외국인선수 계약 현황(20일 현재)

구단	포지션	선수	총액(달러)
두산	투수	마이클 보우덴	110만
		?	?
	야수	닉 에반스	68만
NC	투수	?	?
		?	?
	야수	?	?
넥센	투수	★션 오설리반	110만
		앤디 밴헤켄	90만
	야수	대니 돈	65만
LG	투수	데이비드 허프	140만
		헨리 소사	90만
	야수	루이스 히메네스	100만
KIA	투수	헥터 노에시	170만
		★팻 딘	90만
	야수	★로저 버나디나	90만
SK	투수	메릴 켈리	85만
		★스캇 다이아몬드	60만
	야수	★대니 워스	70만
한화	투수	?	?
		?	?
	야수	윌린 로사리오	150만
롯데	투수	★파커 마켈	52만5000
		?	?
	야수	?	?
삼성	투수	★앤서니 레나도	105만
		?	?
	야수	?	?
kt	투수	★돈 로치	85만
		?	?
	야수	조니 모넬	90만

※ ★=새 외국인선수



황재균 거취, 결국 해 넘기나

롯데·kt와 협상 지지부진…해외 진출 고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장을 열었던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외야수 최형우(33·KIA)와 '좌완 빅3' 김광현(28·SK)~차우찬(29·LG)~양현종(28·KIA)은 모두 KBO리그 잔류를 택한 채 해외진출의 꿈을 뒤로 했다. 이제 관심을 끄는 대어급 선수는 한명이다. 내야수 황재균(29)이다.

황재균은 현재 메이저리그(ML)와 KBO리그 사이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터널의 끝에 다다르는 일이 쉽지는 않다. 양쪽에서 좀처럼 명확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황재균의 에이전트 이한길 GSI 대표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미국 시장 자체가 여전히 더디다. 우리 역시 해를 넘길 각오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을 올해로 한정짓지 않고, 시간을 두며 갈피를 잡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일단 국내에선 롯데와 kt가 영입의사를 내비쳤다. 황재균은 두 구단을 모두 만나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황재균의 해외 진출 의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미국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제야 FA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라며 "지금은 루이스 발부에나와 트레버 플루프 등 준척급 FA 내야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움직인 다음이면 우리에게도 차례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로선 황재균의 최종 거취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성탄절을 전후해 연말 장기 연휴에 들어간다. ML 구단들 역시 이 기간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국내 구단들 역시 이미 대부분 종무식을 마쳤다. 새해를 맞은 뒤에야 최종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롯데, 이대호·황재균 둘 다 놓치면 어쩌나

김영준의 18.44m

대한민국에서 '골든타임'은 밝은 어감이 아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을 일컫는다. 그 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다. 결국 어떤 조직이 지니는 총체적 위기대처능력이 골든타임에서 가려진다. 기자가 보기에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은 롯데 야구단의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롯데는 절망적이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롯데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롯데의 전략일 순 있겠다. 그러나 4년 간 가을야구를 못해본 팀의 '여유'를 도대체 어떻게 봐줘야 할까?

지금 롯데의 국면전환 카드는 크게 2장, 이대호(34)와 황재균(29)의 영입 여부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롯데의 협상전술일 순 있다. 그러나 롯데를 잘 아는 야구인은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둘 다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똑같은 1억원이라도 제시하는 타이밍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은 다르다. '최대한 일찍, 최선의 성의를 제시했다'는 인상을 줬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이 팀이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선명한 정황증거이기 때문이다. 의외로 선수들은 이런 느낌을 꽤 중시한다. 이대호와 황재균이 실제 얼마를 원하는지 추정만 있을 뿐, 공개된 바는 없다. 결국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간보기'가 아니다. 롯데의 확실한 원칙 설정과 우직한 실행능력이다. 이대호와 황재균이 다 있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둘 중 누구 1명만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 놓쳐도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관철해야 한다. 잡을 필요가 있다면 더 서운해지기 전에 제시하면 된다. 그래도 못 잡는다면 그것은 그 나름의 비즈니스다. 롯데가 부끄러워할 일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여론향배에 따라 야구단의 방향성이 출렁이는 사태다. 황재균의 거취를 몰라 외국인 야수의 포지션조차 못 정하는 현실은 이 팀의 전략치를 의심케 한다.

롯데는 팀이 아주 어려운 시국에 프런트 수장인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김창락 대표이사가 이 난국에서 홀로 해법을 찾을 순 없다. 결국 롯데 프런트의 총체적 역량이 걸린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전례를 볼 때, 롯데는 돈을 지를 때와 비축할 때를 적확하게 판단 못했다. 롯데 프런트가 유달리 머리 나쁜 사람만 모인 집단일 리가 없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갈 수 있음에도 롯데야구가 좋아 입사한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롯데에는 적지 않다. 결국 실무 현장직원들의 의견이 위에 가감 없이 수렴되지 못하는 조직문화의 문제로 귀결된다. 소수의 사람들이 밀실 속에서 내렸던 그동안의 결정은 보안은 잘 지켜졌을지 몰라도 효율은 실패에 가까웠다. 안전한 선택만 좇는 길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다.

스포츠2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